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박정서 · 장석진**

상명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A시에 위치한 J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아동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서지능, 또래유능성, 아동·청소년 행동평가(교사용)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치료과정 행동평가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행동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또래유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셋째,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돌봄교실 아동은 회기별 진행과정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 증진에 효과적임을 검증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이 정서·사회적 측면에서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돕는데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집단치료놀이, 초등돌봄교실, 정서지능, 또래유능성

I.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 맞벌이 부부 증가, 핵가족화, 한부모 가족 등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모의 경제활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가정의 역할인 자녀 돌봄이 사회적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여성, 아동, 가족, 사회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사회적 대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우희영, 2012; 조영희, 2014; 황새롬, 2015).

방과 후 성인의 부재는 학습, 정서, 사회성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태수, 2005; 이봉주, 조미라, 2011; 정춘식, 2013). 실제로 성인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유

* 본 연구는 박정서(2014)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schang@smu.ac.kr

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많으며, 대인관계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래관계와 사회성에 문제를 보이며 더 높은 수준의 외현적 행동문제와 심리적인 불안정감을 호소하는 등 이로 인한 품행장애, 학교 부적응 등 전반적인 정서·행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민영희, 2004; 노성향, 2005; 신재균, 2006; 엄경애, 2010; 남지영, 2016). 이에 따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방과 후 가정에서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학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방치되어 각종 사회문제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보호의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초등돌봄교실이다. 초등돌봄교실이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시설이 갖추어진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규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4).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 및 학력향상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a; 2013; 교육부, 2016).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아동의 우선순위는 저소득가정, 한부모나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순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아동의 경우 경제적 격차가 정서는 물론 성장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의료적, 교육적, 정서적 방임 그리고 아동방임 등에 전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심하고(이세영, 2010), 공격적, 반항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정서적 부적응, 왜곡된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 죄책감과 같은 문제를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등(이삼연, 2002; 주소희,

2003; 공유경, 2005; 김세원, 손주영, 2011; 정선영, 2015)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남소현, 김영희, 2000; 문미애, 2006; 이현진, 2006; 지선례, 2012; 김은지, 전귀연, 2014). 또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김신아, 한윤선, 2015). 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불안감, 분노감, 상실감, 고독감, 낮은 성취감, 자기비하 등의 정서적 문제를 가지게 된다(김은정, 2007; 김혜림, 2012; 배홍숙, 2014). 이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어 학교적응전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고되었다(정정희, 2012; 김은지, 전귀연, 2014). 이처럼 초등돌봄교실의 주된 수요자에 대한 이해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초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과 방향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6)는 돌봄교실 프로그램으로 과제지도, 다양한 놀이, 상담활동, 소질개발, 인성지도 등을 교내 타 방과 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교육개발원(2015b)은 특히,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일반학급, 가정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이용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여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이예훈, 권민정, 2015). 원칙적으로 돌봄교실은 이용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실제 돌봄교실 내에서는 여타

공간과 마찬가지로 아동기 발달상의 특징으로 인해 또래관계 문제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놀림, 따돌림, 욕설, 폭력 등의 대인관계상의 문제 행동 양상이 나타나기 쉽다(이용선, 2016).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초등돌봄교실 내의 문제행동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들의 사회·정서·행동적인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룬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강박, 우울, 비행, 과잉행동,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정예리, 이종은, 2008; 문혜영, 2010).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닌 다른 성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보다 또래관계가 정서적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onsner & Vandell, 1994; 정예리, 이종은, 2008). 실제로 학령기 때 경험된 정서·사회적 부적응이 이후의 발달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정옥분, 2009),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부적응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Parker & Asher, 1987;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 김종학, 최보영, 2013),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의 건강한 정서·사회적 적응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서지능은 개인 내적 능력이자 개인 간의 능력으로 학령기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상의 모든 적응능력의 토대가 된다(문용린, 1997; 이옥경, 2008; 전호윤, 2010). 아동기는 정서의 표현 및 이해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성

장기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올바른 정서 표현을 익히게 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발달하여 정서 이해의 폭이 확대되는데, 선행연구자들은 부모·교사·또래와의 관계가 정서지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문용린, 1997; Rubin, 1998; 천혜민, 2008). 정서지능은 학령기에 있는 아동의 학업 성취, 사회적 관계형성 및 적응, 도덕성 발달, 스트레스 대처능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기 정서지능은 학교 적응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자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응에 매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권성은, 2003; 팽혜원, 2006; 박은희, 2012). 실제로,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김규리, 2012), 대인문제 해결력이 우수하며(심혜숙, 왕정희, 2001, 유혜진, 2016), 또래관계가 원만하고(진정미, 유미숙, 2006; 송미정, 2014),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진소연, 2006; 윤지원, 2009)으로 밝혀져 왔다. 반면에, 정서지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고 학교적응이 어려우며(강지훈, 2003; 김세희, 2013), 협동심이 낮고(최은실, 2010), 긍정적인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한유진, 2006; 성은희, 안혜원, 윤명희, 2015). 특히, 또래와 함께 집단생활을 하게 될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지 못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사회 적응상의 어려움 등이 정서와 관련되어 발생하게 된다. 정규수업 이후에도 또래와 함께 하는 집단생활 시간이 연장되는 돌봄교실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서지능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인 또래유능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으며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Howes, 1987; 박주희, 2001; 이지희, 2008).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학령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적 과제는 상호성에 기초를 두고 또래와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변화로 빠른 시기부터 교육기관에서 또래집단을 접하며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또래로부터 받는 영향력도 점차로 확대되고 또래유능성의 중요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원영, 2003; 윤승이, 2007). 또래유능성이 발달된 아동은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며,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교성과 또래들을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친사회성, 그리고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주도성을 보인다(박주희, 이은혜, 2001). 반면, 또래 유능성이 낮은 아동은 비사회적이어서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며, 자신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강요하며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많이 보이므로 또래집단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Campbell & Cluss, 1983; 김나림, 1996; 황선영, 2005). 실제로 낮은 놀이집단에 대한 관찰연구에서 또래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또래와 더 잘 어울려 지내는 반면,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거부되는 경향을 보여, 자기 정서를 긍정적으로 잘 이용하는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희, 2006).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나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들에게 놀이는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추구하는 일과는 달리, 과정 그 자체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동의 생활은 놀이의 연속이고 놀이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주은신, 2004; 노성향, 2009). 돌봄교실 이용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일일 집단생활이 길어지면서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충동적·위축된 행동, 정서적 적응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김영희, 2006), 놀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자연스러운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놀이를 활용한 접근 중, 치료놀이는 ‘모든 인간은 관계욕구가 있다’를 기초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애착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건강하고 조율된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놀이는 자아심리학 이론(Kohut, 1871), 대상관계이론(Winnicott, 1971), 애착이론(Bowlby, 1969)에 기초하여 관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고 있으며(이상희, 2003),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나 아동들에게 유용한 이론이다(Phyllis Booth & Sandra Lindaman, 2002). 집단치료놀이는 개별 치료놀이를 논리적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적합한 접근법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게 또래 집단과의 활기차고 재미있고 보호하는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하며, 자존감 향상과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긍정적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Rubin & Tregay, 1989; Jernberg & Booth, 1999; 신현정, 2003). 또한, 가족에 대한 의식과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

시키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교실상황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 유용하여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허진, 이진숙, 2007; 노성향, 2009). 실제로 집단치료놀이는 집단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높여주고 아동의 자신감을 강화시키며 타인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며(강예리, 2000; 서은미, 2004), 아동의 사회성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성영혜, 2000; 윤미원, 2000; 김수정, 2002; 강정원, 2003; 임용택, 2003; 홍정애, 2003; 오윤아, 2004). 뿐만 아니라, 심리 내면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켜주고 자존감을 높여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향숙, 2005). 집단치료놀이는 이처럼 개별 치료놀이를 논리적으로 확대시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치료적 요인을 활용해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토대로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표상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다(이동진, 채수경,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교실 대상 아동의 정서 · 사회적 적응 발달에 도움을 주는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들의 건강

한 정서적 사회적 발달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또래유능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참여한 초등돌봄교실 아동에게 나타난 행동변화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A시에 위치한 J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아동들로, 사회성 발달과 또래분화가 저학년 때부터 유의하게 발달해 나간다고 밝힌 선행연구자들의 제안(이윤경, 2004)과 또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주대상자가 저학년임을 고려하여, 1~3학년 학생 1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집단원 중 1인이 개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최종 통제집단 6명과 실험집단 5명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아 3명 여아 8명이며, 평균연령은 9세였다.

〈표 1〉 실험집단 아동의 특성

집단유형	대상아동	성별	나이	학년	아동의 특성
실험집단 (N=5)	아동A	여	8	1	한부모가정. 지나치게 바르게 행동함. 말수가 적고 소심함. 걱정이 많아 우는 소리를 가꿈함. 우울감이 있어 보임.
	아동B	남	8	1	맞벌이가정. 차상위계층. 주의집중이 짧고 충동적임. 몸이 아프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또래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잘 운다.

집단유형	대상아동	성별	나이	학년	아동의 특성
실험집단 (N=5)	아동C	여	8	1	맞벌이가정. 소심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자주 뜯음. 불리한 상황에서 또래나 교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음. 감정기복 심하고 쉽게 빠짐.
	아동D	여	10	3	맞벌이가정. 차상위계층. 또래에 비해 성숙하게 행동하고 말함. 교사에게 반항적으로 대들 때가 많음. 또래와 말다툼이 잦음.
	아동E	남	10	3	맞벌이가정. 또래보다 왜소함. 또래와 장난을 치다 싸움이 생김. 또래에게 인기가 있음.

2. 측정도구

1)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지능 측정 도구는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서울대학교 도덕심리연구실의 문용린(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그런편이다' '가끔 그런편이다' '그렇지 않다'의 3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역채점 문항은 6, 10, 11, 13, 14번이며, 문항번호 4, 5번은 '항상 그런 편이다'(0점), '그렇지 않다' (2점)로 채점한다. 본 정서지능 척도는 점수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으며, 본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정서인식 .73, 정서표현 .66, 감정이입 .69, 정서조절 .81로 나타났다.

2) 또래유능성

본 연구에서는 박주희(2001)가 취학 전 유아용으로 제작한 또래유능성 척도를 초등학교 아동에 맞게 재구성한 윤승이(2007)의 또래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유능성 척도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3개의 하위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평정 척도로 5점(항상그렇다), 4점(대부분 그렇다), 3점(보통이다), 2점(약간 그런 것 같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또래유능성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사교성 .89, 친사회성 .83, 주도성 .89로 나타났다.

3) 행동관찰 기록표

아동 반응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전 과정을 녹화하고, 녹화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활동과정을 관찰하여 회기별로 기술하고 분석·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치료놀이 전문가 5인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통하여 제작한 유한규(2002)의 관찰 기록표를 수정·보완한 서은미(2004)의 관찰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관찰항목은 긍정적 행동(협동행동, 제안/규칙수용, 긍정적 자기주장)과 부정적 행동(관심 끌기, 공격행동, 이탈행동, 위축행동, 방해/규칙위반, 접촉거부, 부정적 자기주장)으로 구성된다. 분석평가는 본 연구자 1명과 연구에 참여한 협력 연구자 2명이 함께 모여, 임의로 본 활동 중 10분을 선정하여 아동의 관찰된 행동에 대해 3명에 자세한 분석과 토의를 거쳐 평가하였다.

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집단치료놀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고찰한 아동의 정서·사회적인 주요 발달 과업 및 돌봄교실 이용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애착 및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신수정, 2003; 권은희, 2004; 노성향, 2009; 김운경, 2012). 본 활동에는 목표에 따라 치료놀이의 4가지 원리인 개입, 구조, 양육 도전과 관련된 활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집단 치료놀이의 목적은 자신의 감정 및 타인의 감

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정서적 공감능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서지능의 가장 상위 개념인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아동이 적극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또래 집단에 수용되며, 또래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로 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단계별 구성 및 목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 및 목표

단계	회기	목표
초기단계	1-3	■ 집단원과 친밀감, 즐거움 느끼기 ■ 치료사와 라포 형성하기 ■ 즐거운 개입활동으로 친밀감과 친구를 수용하기 ■ 자기신체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보기
중기단계 I	4-7	■ 양육활동을 통한 또래와 친밀감과 애착경험을 증진 ■ 개입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즐거운 경험 향상하고 타인 감정을 인식하기 ■ 구조와 도전활동을 통해 조율경험, 타인의 감정인식, 나의 감정 다루기
중기단계 II	7-10	■ 양육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경험과 자신의 정서를 표현, 타인 정서를 수용하고 상호작용 능력 향상하기 ■ 구조와 도전활동을 통해 정서조절 능력 증진, 긍정적 자아 형성하기 ■ 성공적인 관계를 맺고 집단원간 애착 증진
종결단계	11-12	■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는 경험하기 ■ 종결준비

본 프로그램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미국 공인 독립 치료놀이 슈퍼바이저 1인과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실시 경험이 있는 미국 공인 치료놀이 수련 슈퍼바이저 2인에게 내용과 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아 설계하였으며, 설계 후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활동은 개입-구조-도전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 활동 내용

단계	회기	준비 활동(10분)	본활동(30분)	마무리 활동(10분)
초기 단계	1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랄랄라(개입) 풍선치기(구조) 일기예보(개입) 동대문놀이(구조) 안마하기(구조/양육)	음식나누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2	인형전달하며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손바닥 째기 (개입/양육) 손 닦기(양육) 그대로 멈춰라(개입) 내다리접어(구조/개입) 기차놀이(구조/개입) 등에 글씨쓰고 전달하기(개입) 풍선치기(도전/구조)	손 닦기(양육) 고깔콘 나눠먹기(양육) 인형전달하며 인사하기(개입) 나가기 인사(개입)
	3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양배추심자(개입/구조) 자석 · 거울되어보기(구조/도전) 엘리베이터 놀이(구조) 신문지찢기&농구(구조/ 도전) 안마하기(구조 개입)	안마하기(구조 개입) 손 닦기(양육) 뽀뽀로 나눠먹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4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예쁜 꽃 심자(개입/구조) 거울되어보기(구조/ 도전) 엘리베이터 놀이(구조) 탁구공 전달하기(개입/도전) 풍선 걷기(구조/도전)	손 닦기(양육) 양파링 나눠먹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중기 단계 I	5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손등으로 로션전달(개입) 예쁜꽃 심자(개입/구조) 풍선 걷기(구조/도전) 수건돌리기(개입) 종이컵 쌓기(구조/ 도전)	손 닦기(양육) 쁘티첼 나눠먹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6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그대로 멈춰라(개입) 종이컵 쌓기(구조/ 도전) 신문지 공 옮기기(구조/도전) 색깔놀이 합시다(구조/도전) 안마하기(개입/양육)	손 닦기(양육) 뽕튀기가면 만들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7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다같이 살짝 손잡고(개입/ 구조) 스티커붙여주기(개입/양육) 신체 몸그리기(개입) 점점 작아지는 배(구조/도전) 등 글씨쓰기(개입)	손 닦기(양육) 고깔콘 나눠먹기(양육) 나가기 인사 (개입)
	8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다같이 살짝 손잡고(개입/구조) 홀라후프통과하기(개입/구조)	손 닦기(양육) 초콜렛 나눠먹기(양육)

중기 단계 II		check up(양육)	강건너기(도전) 우리집에 왜왔니?(개입/양육) 종이컵쌓기(구조/도전)	나가기 인사(개입)
	9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개입)	달팽이 집짓기(개입) 김밥말이(양육/도전) 풍선치기(구조/도전) 휴지폭탄(구조/도전) 미이라만들기(양육/도전) 홀라후프통과하기(개입/구조)	손 닦기(양육) 양파링 나눠먹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10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로션찍기(양육/개입) 우리모두다함께(개입) 인간 옷놀이 (구조/개입) 공끼우고 건기(구조/도전) 색깔놀이 합시다(구조/도전) 종이컵쌓기(구조/도전)	손 닦기(양육) 마이썬 나눠먹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종결 단계	11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우리모두다함께(개입) 미이라만들기(양육/도전) 김밥말이(양육/도전) 우리집에 왜 왔니?(개입/ 양육)	손 닦기(양육) 도너츠 나눠먹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12	인사하기(개입) 약속하기(구조) check up(양육)	달팽이 집짓기(개입) 파티모자 만들어 선물 하기(개입/구조/양육) 손 닦기(양육) 케익만들기(구조/양육)	케익 먹고 느낌 나누기(양육) 나가기 인사(개입)

4. 연구절차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실험집단 6명, 통제집단 6명을 선정하였다.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주 2회 각 회기 당 50분이 소요되었으며 총 12회기로 진행되었고, 한국치료놀이협회 수련치료놀이사인 연구자의 주 진행과 아동학 전공자인 협력 연구자 2인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통제집단은 돌봄교사의 지도에 아래 자유 선택 활동을 하였다. 진행된 각 회기에 대해서는 촬영된 동영상을 중심으로 미국공인 치료놀이 수

퍼바이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아 프로그램 진행의 타당성을 높였다.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 참여 아동에게 정서지능, 또래유능성 설문지를, 초등돌봄 교사에게는 실험에 참여한 집단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를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 설문지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처리하는 SPSS-12.0을 사용하였다.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실험처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두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회기별 아동의 행동을 관찰해 점수화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정서지능 사전점수에서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의 집단 간 평균 차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차 검증결과, 정서지능($p > 0.05$)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서지능 4개 하위영역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지능 사전 동질성 검증

정서지능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정서인식	통제	6	7.8333	1.83485	-.048	.546
	실험	5	6.2000	2.28035	-.045	
정서표현	통제	6	12.0000	2.44949	1.319	.599
	실험	5	9.0000	2.23607	1.291	
감정이입	통제	6	5.1667	2.04124	2.102	.865
	실험	5	6.8000	1.92354	2.121	
정서조절	통제	6	6.5000	1.04881	-1.356	.105
	실험	5	10.0000	3.39116	-1.364	
정서지능 총점	통제	6	31.8333	2.48328	-2.416	.052
	실험	5	32.0000	7.96869	-2.221	

1) 집단 간 정서지능 결과 비교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정서지능 검사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정서지능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정서인식	통제	6	7.83	1.83	7.83	2.32
	실험	5	6.20	2.28	7.00	3.00
정서표현	통제	6	12.00	2.44	10.33	2.66
	실험	5	9.00	2.23	8.60	2.07
감정이입	통제	6	5.17	5.17	5.33	2.42
	실험	5	6.80	1.92	9.20	.84
정서조절	통제	6	6.50	1.05	5.83	1.17
	실험	5	10.00	3.40	11.0	3.08
정서지능총점	통제	6	31.83	2.48	29.33	3.56
	실험	5	32.00	8.00	35.8	6.6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지능 전체와 하위요인에 대한 공분석 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 사후검사 점수의 분석결과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 = 5.787$, $p < .05$),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F = 7.616$, $p < .05$), 감정이입($F = 11.168$, $p < .05$), 정서

조절($F = 6.395$, $p < .0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그 하위 요인 중 정서인식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집단 간 정서지능 검사와 하위요인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종속요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서인식 (N = 11)	공분석	58.282	1	58.282	102.454***	.000
	집단간	3.287	1	3.287	5.778*	.043
	오차	4.551	8	.567		
	합계	676.000	11			
정서표현 (N = 11)	공분석	35.197	1	35.197	19.021**	.002
	집단간	5.899	1	5.899	3.188	.112
	오차	14.803	8	1.850		
	합계	1319.000	11			
감정이입 (N = 11)	공분석	2.341	1	2.341	.629	.451
	집단간	41.591	1	41.591	11.168*	.010
	오차	29.792	8	3.724		
	합계	626.000	11			

정서조절 (<i>N</i> = 11)	공분석	33.442	1	33.442	23.485**	.001
	집단간	9.106	1	9.106	6.395*	.035
	오차	11.392	8	1.424		
	합계	854.000	11			
전체 (<i>N</i> = 11)	공분석	148.023	1	148.023	13.141*	.007
	집단간	109.821	1	109.821	9.750*	.014
	오차	90.111	8	11.264		
	합계	11809.000	11			

* $p < .05$ ** $p < .01$ *** $p < 0.001$

2.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정서지능 사전점수에서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차 검증결과,

또래유능성($p > 0.05$)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또래유능성 3개 하위영역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유능성 사전 동질성 검증

또래 유능성	집단	평균	평균	표준편차	<i>t</i>	<i>p</i>
사교성	통제	6	11.5000	3.88587	.999	.483
	실험	5	8.6000	5.72713	.963	
친사회성	통제	6	15.6667	3.26599	1.134	.966
	실험	5	13.2000	3.96232	1.112	
주도성	통제	6	13.6667	3.14113	2.385	.161
	실험	5	10.0000	1.58114	2.504	
또래 유능성 총점	통제	6	40.8333	7.13909	1.819	.907
	실험	5	31.8000	9.36483	1.770	

* $p < .05$ ** $p < .01$ *** $p < 0.001$

1) 집단 간 또래유능성 결과 비교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돌봄교실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집

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8> 정서지능 검사의 사전 · 사후 검사 결과

또래유능성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사교성	통제	6	10.33	3.88	10.33	3.78
	실험	5	8.83	5.15	14.80	5.90
친사회성	통제	6	14.50	3.27	14.50	5.58
	실험	5	14.00	4.05	16.60	3.84
주도성	통제	6	13.00	3.14	13.00	3.22
	실험	5	10.66	2.16	11.20	1.30
또래유능성	통제	6	37.83	7.14	37.83	10.74
총점	실험	5	33.50	9.35	43.00	8.51

<표 9>에서와 같이 또래유능성 전체와 하위요인에 대한 공분석 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 또래유능성 사후검사 점수의 분석결과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F = 6.894$, $p < .05$), 하위요인 중 사교성($F = 11.406$, $p <$

.05), 친사회성($F = 7.559$ $p < .05$)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돌봄교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돌봄교실 아동의 또래유능성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그 하위 요인 중 사교성, 친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

<표 9> 집단 간 또래유능성 검사와 하위요인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종속요인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 교 성	공분석	131.075	1	131.075	13.264**	.007
	집단간	112.713	1	112.713	11.406*	.010
	오차	79.059	8	9.882		
	합계	1946.000	11			
친사회성	공분석	153.234	1	153.234	19.944**	.002
	집단간	58.079	1	58.079	7.559*	.025
	오차	61.466	8	7.683		
	합계	2854.000	11			
주 도 성	공분석	17.258	1	17.258	3.324	.106
	집단간	.053	1	.053	.010	.922
	오차	41.542	8	5.193		
	합계	1700.000	11			
전 체	공분석	468.784	1	468.784	9.422*	.015
	집단간	342.999	1	342.999	6.894*	.030
	오차	18700.000	8	49.756		
	합계	939.63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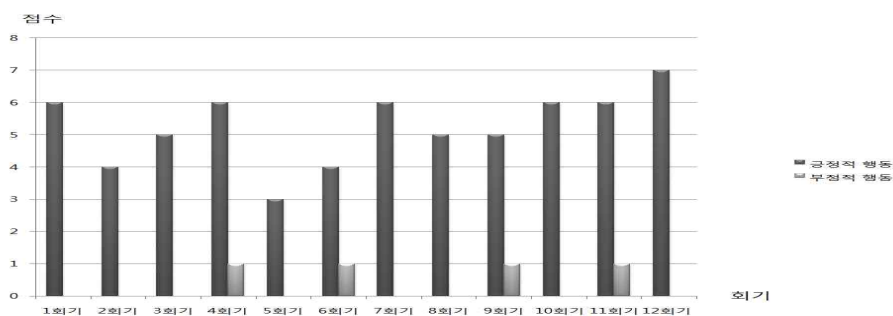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01$

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행동변화 분석

1) 아동 A의 비디오 관찰을 통한 행동 변화 분석

아동 A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변화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초기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조용한 편이었다. 그러나 치료사와 눈

맞춤은 적절하였다. 자신이 말을 해야 할 차례에 부끄러워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초기에 관찰되었지만 점차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기주장이 증가하였고 집단원들이 수용하는 경험을 하였다. 회기 동안 위축행동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회기 중반부터 협동하고 규칙을 수용하는 긍정적 행동이 꾸준히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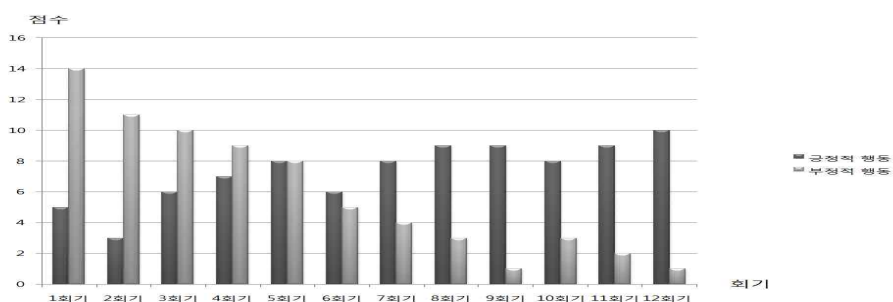


[그림 1] 아동 A의 행동변화

2) 아동 B의 비디오 관찰을 통한 행동 변화 분석

아동 B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변화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초기에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해물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나타났으나 점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양육행동 거부에서 양육행동을 수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회기 초기에는 부정적 자기주장이 많아 치료사가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차 긍정적인 자기주장, 협동행동이 증가, 긍정적 행동이 증가되면서 적극적으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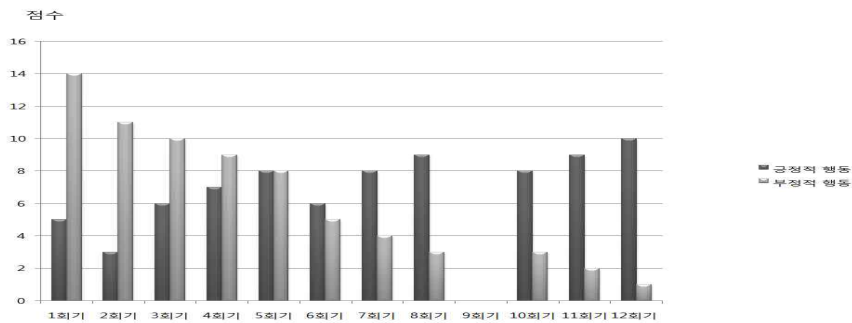


[그림 2] 아동 B의 행동변화

3) 아동 C의 비디오 관찰을 통한 행동 변화 분석

아동 C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변화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2회기 때부터 자기주장이 나타났으며, 수용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눈맞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규칙 지키기와 또래와의 협동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육행동은 초기에 잘 수용하지 못하였지만, 회기 후반에는 자연스럽게 수용되었다. 회기 후반기에 아동은 또래와 협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적인 활동을 많이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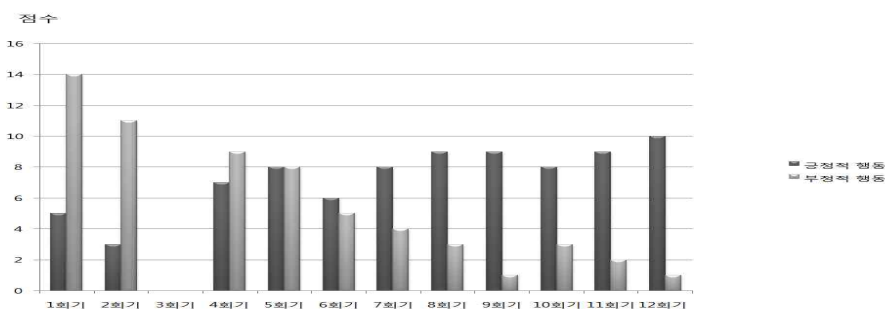


[그림 3] 아동 C의 행동변화

4) 아동 D의 비디오 관찰을 통한 행동 변화 분석

아동 D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변화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각 활동마다 흥미를 쉽게 느끼거나 흥미가 쉽게 떨어져 즐겁게 참여하는데 방해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다. 흥미를 느끼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흥미를 잃으면 공격적 행동이 나타났다. 또

한 치료사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행동이 초반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치료사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중반부터는 긍정적 행동인 양육행동이 수용되고, 규칙 지키기가 증가하였다. 타인양육, 위로개입은 증가되지 않았으나 또래와 협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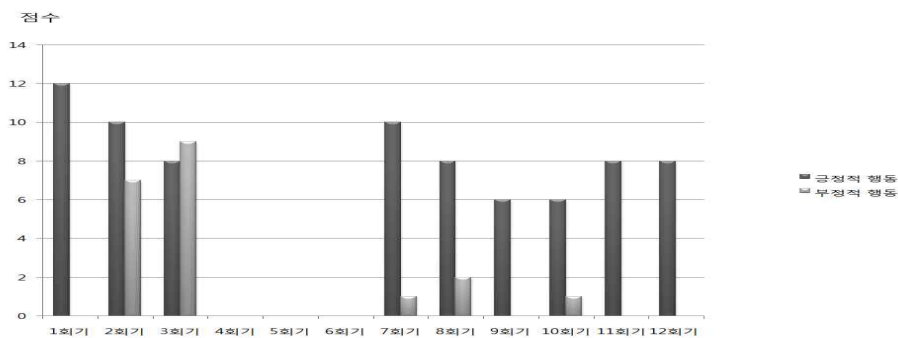


[그림 4] 아동 D의 행동변화

5) 아동 E의 비디오 관찰을 통한 행동 변화 분석

아동 E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변화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연속으로 결석이 있었다. 중기단계가 시작되면서 결석을 하여 7회기에 다시 집단에 참여한 처음에는 어색해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규칙을 수용하고 협동 행동을 하면서

적응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고를 당한 아동E를 다른 집단원들이 위로하고 걱정해주는 타인 양육행동이 나타났고, 이를 수용하는 모습이 보였다. 초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짝을 이루어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였으나 점차 규칙을 수용하며, 다른 친구들과도 협동하며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림 5] 아동 E의 행동변화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치료가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 전체와 하위 요인 중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의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집단치료가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게 하였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집단치료가 프로그램의 집단치료가 활동을 통해 돌봄교실 아동들은 안정감을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상호작용 안에서 통제력, 부정적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돌봄교실 아동들이 보다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집단치료가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을 지키고 또래와 협력하고 존중하며 조율해나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또래를 배려하고 친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입을 배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집단치료가 프로그램이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권은희, 2005; 이경화, 손원경, 2005; 노성향, 2009), 집단치료놀이에 참여한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언어로 보다 많이 잘 표현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말숙, 2002; 권은희, 2005; 노성향, 2009)를 지지한다. 또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학교 생활 부적응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으며(이미나, 2011),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김지연, 2009), 부적응 유아의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표현을 높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허진, 이진숙, 2005)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또래유능성 향상에 효과적인가를 검증한 결과, 또래유능성 전체와 하위 요인 중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아동이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며 또래 아동에게 인기가 많고 폭넓게 어울릴 수 있으며 다른 친구를 잘 도와주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은 집단치료놀이 활동을 통해 경험한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또래와 공유하였는데, 매회기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많이 시도하게 함으로써 또래 간의 친밀한 접촉이 높여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치료놀이가 또래와 협동하는 능력과 타인과의 관계형성 능력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유한규, 2002; 신수정, 2003; 이주연, 2006) 결과와 일치하며, 집단으로 구성되는 치료적 놀이가 또래유능감 향상을 도모한다(이수진, 2012; 김창순, 2013; 박영미, 2013; 유선미, 2014)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참여한 아동의 회기별 나타난 행동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든 대상 아동의 행동 변화 하위영역이 일정한 상승률의 폭을 보이며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전체회기의 흐름을 보았을 때 전체 대상아동의 마지막 회기와 첫 회기의 점수 간에 변화를 보였다. 즉, 아동들은 초에는 규칙수용이나 양육 행동에 대해 거부를 하였으나 점차 타인양육 행동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또래와의 협동, 집단치료놀이 활동의 규칙 수용, 긍정적인 자기주장이 증가하였다. 반면, 위축되고, 공격적이며, 이탈된 행동은 점차 감소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시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과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은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초기에 증가되었던 부정적인 행동은 감소하였으며, 회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긍정적인 행동은 높아지고 부정적 행동은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며 아동의 행동문제를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내에서 즐겁고 수용적인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소속감과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정서적 어려움의 해소를 돕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 향상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 보면 첫째, 본 연구는 J초등학교 돌봄교실 저학년 아동 5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 연령대 아동의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전체 대상으로 일반

화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연령대 및 사례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양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주관에 따라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한편, 효과의 객관적 분석을 위하여 관찰 평가의 객관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대상 아동에 대한 집단치료놀이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참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예방적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향후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포집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예리(2000). **우울한 아동에 대한 집단 놀이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강정원(2003). **치료놀이를 통한 부적응 행동 유아의 사회적 관계 증진과정**.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공유경(2005). **방과 후 아동의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환경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말숙(2004). **놀이를 통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또래피로함 당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희, 이종연(2007).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공격성 및 피공격성의 관계. **교원연구논총**, 28(3), 1-21.
- 김수정(2002). **집단 치료놀이를 통한 사회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부모양육행동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신아, 한운선(2015). 초기청소년과 중기 청소년의 컴퓨터사용시간에 대한 방과후 보호자부재와 학교적응의 상호작용. **아동과 권리**, 19(1), 103-124.
- 김영희(2006).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윤경(2012). **집단치료놀이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애착과 친구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연구**, 15(1), 73-91.
- 김은정(2007).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은지, 전귀연(2014).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부모 양육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2), 171-193.
- 김종렬, 이은주(2013).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부모와 또래 지지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6(4), 129-147.
- 김중학, 최보영(2013).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비교: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2), 319-342.
- 김창순(2013). **공감능력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림(2006). **방과 후 아동지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비교 : 학부모와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 교육부 (2014, 12, 19). **2015년 초등돌봄교실 학생·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주력**.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2015b). 20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16). 2016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은희(2004). 집단치료놀이와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지영(2016). 초기 청소년의 방과 후 부모부재가 학교적응과 또래애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적응행동: 성별중심. **생활과학연구논총**, 3(3), 17-28.
- 노성향(2005).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6(1), 347-357.
- 문미애(2006).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 및 적응행동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문용린(1997). 도덕성 회복과 사회교육:창조성과 사회응집성을 위한 교육. **대한사립 중고등학교 장학회회지**, 82(8), 64-72.
- 민영희(2004). 동적가족화에 나타나는 반응특성과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박영미(2013). 신체접촉 중심의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교사관계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희(2012). 구조화된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주희, 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교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배홍숙(2014).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은미(200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 성영혜(2000). **아동치료의 새로운 접근 치료놀이(I)**. 형설출판사.
- 송미정(2014).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충동성 및 또래관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신승우, 정미숙, 김주희, 김광식(2014).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돌봄교실 아동의 사회성 및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2-113.
- 신수정(200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증진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혜숙,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엄경애(2010).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오윤아(2004). **집단-치료놀이와 자폐성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우희영(2012). **초등 돌봄 교실 아동의 방과후 보육 생활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유선미(2014). **협동적 신체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혜진(2016). **그림책을 활용한 인성교육이 혼합연력학급 유아의 정서지능 및 대인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윤미원(2000). **치료적 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승이(2007).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수용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화, 손원경(2005).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구조분석. **한국아동학회**,

- 26(4), 157-171.
- 이동진, 채수경(2010).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시설유아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4(3), 55-73.
- 이봉주, 조미라(2011). 방과 후 방치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6(1), 7-33.
- 이상희(2003). **모아치료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0, 37-65.
- 이수진(2012). **또래협동 신체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옥경(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행동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선(2016). **청소년기 이전 아동들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경험 연구 : 사회관계와 문제 행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연(2006). **그룹홈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증진을 위한 집단 치료놀이 프로그램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지희(2008).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진경(2004). **사회적 유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진(2006). **협동작업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이태수(2005).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임용택(2003). **접촉치료놀이활동이 자폐성 장애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전호윤(2010). **정서지능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선영(2015). **방과후 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자기보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5(5), 165-173.
- 정예리, 이중은(2008).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3), 231-239.
- 정정희(2012). **문학과 통합한 미술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창의성과 미술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1(1), 247-263.
- 조영희(201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141-162.
- 주은선(2004). **치료놀이에 대한 개관**. **열린교육실험연구**, 1(7), 63-80.
- 주소희(2003).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자녀의 심리·행동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179-210.
- 지선례(2012). **성별에 따른 한부모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3(4), 35-50.
- 진소연(2006). **정서지능향상프로그램이 한부모가정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5(1), 139-159.
- 진정미, 유미숙(2006).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3), 225-240.
- 최은실(2010).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유진(2006). **한부모가정 아동의 또래예착과 우울성향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선희(2014). **유아의 정서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관계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진, 이진숙(2007).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이 부정적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1(1), 87-107.
- 홍정애(2003). **집단치료놀이를 통한 피학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황선영(2005). **또래 유능성이 낮은 유아의 모래상**

- 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황새롬 (2015).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서의 음악 활용 조사: 대전지역 오후돌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Campbell, S. B., & Cluss, P. (1983). Peer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In K. H. Rubin & H. S. Ross (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pp. 323-351). New York: Stringer-Verlag.
- Howes, C., Rubin, K. H., Ross, H. S., & French, D. C. (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1), i+iii+v+1-92.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Booth., P. B., & Jernberg, A. M. (2011). **치료놀이** (윤미원, 김윤경 신현정 전은희 김유진 역). 서울: 학지사. (원서 2010년 발행)
- Ponser, J. K., & Vandell, D. I. (1994). Low-Income Children's After-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Abstract

The Effect of Group Theraplay Program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of Elementary Childcare Class Children

Park, Jung-Seo · Chang, Seok-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group theraplay program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of elementary childcare class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s, peer competence scales and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or elementary childcare class children in J cit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independent sample t test to verify the homogeneity of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A covariance analysis (ANCOVA)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rogram was performed using the treatment course behavior evaluation tab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group theraplay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of elementary childcare class children. Second, group theraplay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peer competence of elementary childcare class children. Third, elementary childcare class children participated in group theraplay program showed behavioral change according to the session progression.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group theraplay program is effective in enhanc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of elementary childcare class childre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group theraplay program, Elementary Childcare Class children, emotional intelligence, peer competence

1차 원고접수: 2016년 11월 24일

수정 원고접수: 2017년 1월 18일

최종 게재 결정: 2017년 1월 25일